

문화전당·비엔날레 '상생' 손 잡는다

전당,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전당서 개최·콘텐츠 활용 제의
시, 광주 문화 브랜드 높이기 시너지 효과 기대... 긍정 검토

오는 9월 개관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이 20년 전통의 광주비엔날레와 상생 협력을 제안해 관심이 쏠린다. 문화전당측의 이번 제안은 전당을 제출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광주비엔날레의 브랜드와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일용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문화전당측이 전당 내에서 비엔날레 특별전 개최 등 광주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의 활용 방안을 제안해와 전향적으로 검토중"이라며 "광주비엔날레 개최 효과를 문화전당까지 확산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광주에서 광주의 문화 콘텐츠를 (문화전당 내에) 넣었으면 한다는 제안을 했었지만, 되레 지역색이 강해질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당했다"며 "최근 새롭게 구성된 문화전당 조직이 지역과 융화를 우선하는 등 '열린 생각'으로 접근해 오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실장의 발언은 광주지역에서 문화전당과 비엔날레의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당위론이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 고위층에서도 문화전당과 비엔날레를 묶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양대 문화자산으로 만들어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아시아권 미술행사를 대표해온 광주비엔날레가 문화전당에서 열릴 경우 문화전당의 콘텐츠를 확충함과 동시에 광주의 문화브랜드를 높이는 시너지 효과 등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현재 문화전당이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시 공간은 복합전시관 5개(문화창조원), 민주인권 평화기념관 전시실 등 모두 6곳으로, 물리적으로는 비엔날레 행사를 치를 공간은 충분하다. 최소 1085㎡~3108㎡에 달하는 대형 전시공간이다. 단, 오는 9월 개관 이후에는 문화전당이 기획한 상설전이 지속적으로 열릴 예정이어서 비엔날레 행사가 열린다면 일정 부분 공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는 10월 열리는 광주디자인 비엔날레의 일부 행사도 문화전당 내에서 치르는 방안을 검토했

지만, 전시공간 등이 확보 안 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열리는 2015국제디자인총회의 경우엔 소규모여서 일부 행사를 문화전당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방선규 문화전당장 직무대리는 일단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문화전당 차원에서 비엔날레 개최 여부를 제안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광주시와 비엔날레 재단이 문화전당에서 비엔날레 일부 행사를 개최하는 안을 내놓을 경우 검토할 용의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비엔날레재단은 "내부적으로 문화전당과의 상생이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현재까지 공식화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알립니다

영호남 문화 대축전

9월 18~20일 대구시 두류공원 상생·교류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영·호남 지역민들이 달구벌 대구에서 만나 정겨운 소통의 잔치를 벌입니다.

대축전은 영·호남 화합과 상생을 다지고 접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참가자 모두가 흥겹게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두 지역에서 엄선된 영·호남 농·수·축 특산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남과 호남의 상생과 교류를 목표로 열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두 지역은 라이벌이 아닌 소중한 파트너로 거듭날 것입니다. 민족 대통합의 시발점이자 동서화합의 교두보가 될 이번 대축전에 광주·전남·전북 지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행사명 : 2015 영·호남 문화 대축전
- 일시 : 2015년 9월18일(금)~20일(일)
- 장소 : 대구광역시 두류공원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 주최·주관 : 광주일보, 매일신문
- 홍보판매부스 운영자 모집 : 호남권 특산물 생산단체(선착순 모집·배치)
- 문의 : 광주·전남 행사본부 062-220-0555, 010-5156-5596

光州日報社



금호타이어 노조 전면파업 금호타이어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한 17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한 노조원이 대체인력이 투입돼 일부 가동중인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관련기사 14면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적조·해파리떼... 몸살 앓는 南海

남해안이 적조와 해파리떼 출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남 남해안 해역에 적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17일 거제 연안 양식장에서 대규모 집단폐사 신고가 접수되면서 인근 전남도 해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날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연안 가두리

양식장 3곳에서 참돔과 돌돔 등 33만여마리가 폐사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적조경보가 내려진 여수 돌산~고흥 염포 등지에 인력과 선박을 집중 투입해 적조 확산을 막기 위한 집중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거제서 참돔 등 33만마리 폐사 전남 해역 적조 방제 총력
독량만 일대 해파리 출현 '비상'
도는 이날 인력 460명과 선박 305척을 투입해 양식장 주변 해역에서는 수류방제(선박이 물살을 일으켜 적조 생물을 분쇄하는 방식)를 하고 양식장에서 먼 해역에서는 황도살포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17일까지 전남 해역에서는 적조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적조 경보와 함께 고흥 독량만 일대 해역에서는 다량의 보름달물 해파리가 출현해 양식어가에 비상이 걸렸다. 국립수산물학원은 지난 6월11일 독량만 해역 일대에 보름달물 해파리 주의보 발령 이후 해파리를 모니터링한 결과 표층에서 산발적으로 띠를 형성해 유행하는 다량의 해파리가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고흥=주각중기자 gju@kwangju.co.kr

삼성, 청년 일자리 3만개 창출

2년간 1000억원 투입

삼성그룹은 앞으로 2년간 총 3만명의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은 이날 향후 2년간 1000억원 규모로 총 3만명에게 청년 일자리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 발표했다. 삼성의 일자리 창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 디딤돌 3000명, 사회 맞춤형 학과 1600명, 직업 체험 인턴 및 금융영업 4000명 등 8600여명을 채용한다. 여기서 신규 투자를 통해 2017년까지 1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총 1만1400명에게 청년창업 활성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삼성 고용 디딤돌'은 삼성 협력사 취업 희망자에게 취업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업훈련과 인턴십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삼성은 협력사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3000명을 선발, 3개월은 삼성에서 직무교육을 받고 3개월은 협력사에서 인턴십을 거친다. 직무교육과 인턴 기간 청년에게 지급하는 월 150만원

의 급여는 모두 삼성이 부담한다. 특히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을 거쳐 협력사에 4년 이상 근무할 경우 삼성 계열사 경력 사원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 '고용 사다리'를 두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사회 맞춤형 학과'는 청년들은 일자리에, 기업들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인력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마이스터고와 대학 특성화학과를 확대, 1600명을 양성해 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제품 영업 업무를 3개월간 체험할 수 있는 전자판매 직업 체험 청년 인턴 2000명을 선발한다. 이들 청년 인턴은 전국 지점에서 직업을 체험하고 월 150만원을 받으며 우수 인력은 채용으로 이어진다. /연합뉴스

2016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입생 수시모집
신학과, 국제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음악학과, 실용음악학과
원서접수 9.9(수) ~ 9.15(화)
전형일 10.2(금) 문의 (062)605-1114

시간을 거슬러
눈부시게 빛나는 길
헤라 에이지 리버스 쿠션

시간을 거슬러는 빛을 가져와
피부에 빛을 머금어 빛나는 것이 되게 하고
속에서 어린 피부를 되살려주는 에이지 리버스 쿠션.
눈부신 빛과 젊음 그 모든 것을 갖고 더 눈부시게

HERA